

LG전자의 미운오리 스마트폰, 5G 날개달고 백조되나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에도 MC사업부는 1300억 적자 전망 5G·폴더를 내세우며 도약 노력

LG전자가 역대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모두 최대치를 기록한 2분기 잠정실적을 지난 6일 발표했다. 부문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생활가전과 TV수신기 부분이 실적을 견인했으며 스마트폰을 다루는 MC사업부만 큰 폭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분기째 영업적자를 앞두고 있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언제쯤 흑자를 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LG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연결 기준 매출액 15조177억 원, 영업이익 771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로 보면 매출액과 30조1407억 원에 영업이익 1조8788억 원이다. 생활가전(H&



LG전자가 7월 6일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5 ThinQ를 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 국내시장에 출시했다. /LG전자

A) 사업본부가 영업이익 5000억원, TV수신기 부문(HE) 사업본부가 영업이익 4000억원 내외로 관측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모바일 부문(MC)사업본부는 1300억~15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LG전자의 부문별 실적에 긴 호흡으로 살펴보면 생활가전 부문이 꾸준히 우수한 이익을 내주고 있고, 최근 OLED TV의 성공으로 TV수신기 부문이 부쩍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에어컨과 에너지 부문(AE)이 소폭 이익을 주고 있는 반면 MC

사업부가 줄곧 전체 이익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만일 재무관리자 입장에서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LG전자의 이익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돈이 안되는 MC사업부를 없애고 남은 인력과 설비를 다른 사업부로 분산시키면 된다. 일본 소니의 경우 몇 년 전 최고경영자가 적자투성이의 스마트폰 사업철수를 고려하는 메시지를 내보낸 적이 있다. LG전자 MC사업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일단 MC사업부는 신제품을 출시하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지난 6일 LG V35 씽큐를 출시했다. 2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2조8500억원이다. 신제품 출시 효과에 매출액 자체는 약간 늘어났지만 마케팅 비용도 그에 맞춰 늘어났기에 영업이익자는 줄지 않았다. G7 씽큐 판매량은 지난달 18일 정식 출시 이후 한 달간 약 9만8000대 수준이며 일 평균 판매량은 약 3000대 정도로 추정된다.

LG전자에게 스마트폰 사업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지만 상징적 의미 때문에 쉽게

계 접을 수도 없는 부분이다. LG전자는 그룹 내에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센서 등 스마트폰 핵심부품 원천기술을 가진 몇 안되는 업체다.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자사 가전제품과 연결성도 만들어야 하고, 그룹 내 부품 업체와의 시너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천덕꾸러기 내지는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LG 스마트폰 사업은 언제쯤 '백조'가 될 수 있을까. 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된 5G 네트워크를 도약의 기회로 꼽는다. 실제로 LG전자는 2007~2008년 초 콜릿폰의 성공으로 영업이익을 1년만에 46.2% 끌어올렸고 글로벌 점유율에서 노키아, 삼성에 이어 3위에 오른 적도 있다.

업계전문가는 "5G 기반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여기에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이 결합되면 기술격차가 확실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면서 "여기에 LG전자가 우수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면 브랜드 이미지와 판매량 양쪽을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군더더기 빼고 'SUV 강점'만 모았다



볼보자동차 '더 뉴 XC40'

안전성·편의성·실용성 강화
최고출력 190마력·4620만원~



볼보자동차 더 뉴 XC40 주행 모습.



볼보자동차 더 뉴 XC40 실내모습.

볼보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막내 XC40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올해 출시된 XC60과 플래그십 모델인 XC90이 국내서 흥행몰이에 나선 가운데 볼보의 SUV 라인업을 완성하는 막내 XC40도 사전계약 1000대를 넘어 서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최근 볼보가 국내 시장에 출시한 XC40의 시승을 통해 차량의 장점을 알아봤다. 시승 코스는 경기도 남양주를 출발해 춘천, 가평, 서울 반포한강공원까지 주행하는 약 240km로, 도심과 고속도로, 와인딩 구간 등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었다.

◆컴팩트 SUV의 매력 '흠뻑'

그동안 큰 차체와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만들어온 볼보가 변했다. 볼보 XC40의 외형은 한눈에 들어오는 아담한 크기를 갖추고 있다. 차량 길이는 4425mm로 볼보 역사상 최초의 소형 SUV 차량이다. 전면 헤드램프는 신하 속 토르의 망치를 닮아놓은 듯 한 모양의 LED 등이 인상적이다. 대부분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적용해 단조로운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세련된 감성이 투톤 알로이 휠을 더해 프리미엄 브랜드의 감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아함과 다이내믹함을 각각 대변하는 XC90과 XC60과는 달리 XC40의 전면부 인상은 강렬한 인상을 뽐내는데 특징이다. 헤드램프 눈매를 보다 가까워진 각도로 만들고, 토르의 망치 헤드 부분의 풀-LED램프를 'Y'자에 가깝게 디자인해 보다 날렵한 인상으로 완성했다.

◆실내공간 활용 극대화

운전석에 앉으면 곳곳에 다양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석 밑 수납공간, 오른쪽 무릎이 닿는 곳엔 선글라스를 놓을 수 있는 공간 등이 있다.

특히 도어 트림 수납공간은 매우 넓다. 한쪽 도어 트림에 노트북과 물통을 넣어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공간이 넓어진 건 저음역 스피커인 우퍼의 위치를 도어에서 대시보드 안쪽으로 옮긴 덕분이다. 기어 노브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스마트키를 둘만 한 수납공간이 있다. 뒷좌석은 따로 없다. 그 뒤로 8단 자동변속기 전자식 기어 노브와 컵홀더가 나란히 있다.

콘솔박스는 뚜껑이 달린 휴지통과 깊은 수납함으로 나뉘어 있다. 여성 운전자들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조수석 클러치 박스 덮개에는 핸드백 걸이가 있다. 적재 공간도 460l에서 1336l까지 넓힐 수 있다.

◆기본에 충실한 주행성능

최고출력 190마력과 최대 토크 30.6

kg·m을 갖춘 2.0L T4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했다. 여기에 8단 기어트론닉 변속기를 조합해 AWD 시스템을 거쳐 노면으로 출력을 전한다.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 8.5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공인 연비는 10.3km/L를 달성했다. (도심 9.2km/L 고속 12.2km/L).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에 힘을주자 가볍게 톱 치고 나갔다. 특히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초반 급가속할 때 느끼지 못했던 가속력을 고속 주행에서 보다 완벽하게 느껴졌다.

또 다양한 안정장치도 탑재했다. 볼보의 지능형 안전 시스템인 인텔리세이프를 기본 탑재한 게 대표적이다. 인텔리세이프는 충돌 회피 지원, 긴급 제동 시스템(시티세이프티), 도로 이탈 보호 시스템, 파일럿 어시스트II(반자율주행)로 구성됐다. '웰빙'에도 신경 썼다. 차량 내부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유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실내공기 청정 시스템도 채택했다.

국내 판매 모델은 2.0L T4 가솔린 엔진, 8단 자동 기어트론닉, 사륜구동을 채택했다. 최고출력은 190마력, 최대토크 30.6kg·m이다.

더 뉴 XC40은 과장이나 화려함 같은 군더더기는 없애고 '안전·편의·실용'처럼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기능에 주력한 미니멀라이프 SUV다. 가격은 4620만~508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디스플레이, 신기술 스타트업 키운다

'드림플레이 데모데이' 개최

LG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분야의 독창적인 기술과 창의력을 겸비한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첨단기술 창업지원 전문기업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함께 추진한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드림플레이'의 성과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드림플레이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드림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지난 3월부터 디스플레이 기술지원과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기술 창업 지원을 바탕으로 미래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혁신을 이끌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창업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을 비롯해 LG전자·LG화학·LG이노텍·LG생활건강·LG하우시스·LG상사 등 계열사 스타트업 관련 임직원과 블루포인트파트너스 관계자, 스타트업 중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됐다.

현장에서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위한 직접 기술 분야 스타트업 5개팀과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응용 기술 분야 스타트업 4개팀이 기술 발표를 진행했다.



한 스타트업이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위한 직접·응용기술 분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최우수상은 서라운드 오디오시스템 빌트인 CSO(크리스탈 사운드 올라드)를 발표한 '에스큐그리고'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한 팀들에게는 LG디스플레이가 제공하는 상금과 향후 Seed 투자 및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과 기술협력, 초기 투자 비용 지원의 기회 등을 얻게 된다.

LG디스플레이 CTO(최고기술책임자) 강인병 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드림플레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LG디스플레이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상생'의 좋은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n6326@

포스코ICT 中 제철소에 무인크레인시스템 수출

포스코ICT가 중국 철강기업에 스마트팩토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인 크레인 시스템을 수출한다.

8일 포스코ICT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철강기업 서우강징탕강철이 신규 건설하는 제철소의 연주, 열연공장에 무인크레인인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공급한다. 이번 사업에는 독일의 슈나이더와 이탈리아의 다니엘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포스코ICT가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 수주한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서우강징탕강철은 물류시스템의 자동화, 무인화를 이룰 전망이다. 특히, 생산, 물류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팩토리로 진화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우강징탕강철은 서우강징철이 허베이성 탕산에 새롭게 신설한 철강기업으로 2009년부터 연간 970만톤 규모의 자동차용 강판, 파이프강, 표면처리 강판 등을 생산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